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59. 하늘의 큰 전쟁의 서막

2014. 02. 1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준 실상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1~4]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1. 지난 시간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할 차례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들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예, 당연히 그렇지요.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들어봅시다.

[요16:19~22]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이었지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해산할 때가 되어 아프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순결한 복음 진리교회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진리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표상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에 비겨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프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아울러 표현하는 말이지요. 십자가가 해산의 고통이라면 부활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되는데 5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부활승천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승천으로 승리하시는 사실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입하니 그 해석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는 진리에 올바르게 서있는 복음교회이고, 구주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사단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해산의 고통이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승리하신 것이라는 설명은 이 장면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주가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의 이루실 일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붉은 용입니다.

답: 예, 다 하늘에 이적입니다. 이적이라고 번역한 말은 “세메이온”인데 “표”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이적도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표적이라고 번역된 말이 다 세메이온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 전개되는 사건들의 배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세메이온을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계시나 용의 계시는 어떤 사건의 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큰 전쟁의 상징적 표시로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뜻이지요. 먼저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까는 여자의 차림새를 살펴보았지요. 여기서는 용의 모습을 살펴보아야하겠지요. 용이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계12: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이 붉은 용은 사단ियो 마귀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히브리말을 그 발음대로 적은 것인데, 정확하게는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발로에서 온 말입니다. 디아발로는 비방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디아발로는 “디아”와 “발로”의 합성어인데 “……으로부터 내어쫓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표상하는 용이 붉은 색입니다. 붉은 색은 성경에서 피, 죄의 색깔입니다. 이 짐승은 죄로 피 흘려 죽는 사망을 주관하는 세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히2:14에 마귀를 사망의 세력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에 죄를 붉은 색으로 묘사했습니다.

[겔22:27]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을 멸하는데 피를 흘립니다. 사망의 색깔입니다. 사단이야말로 죄로 영혼을 멸하게 되도록 하는 장본인이지요.

그런데 머리가 일곱입니다. 또 열 뿔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디아데마로서 왕관입니다. 여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서 승리의 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용은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일곱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열 뿔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답: 예언에서 일곱 머리를 찾으려면 그 원조가 다니엘 7장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다니엘 7장이 가리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교회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해석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원칙으로 볼 때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니엘 7장에 가봐야 하겠지요.

[단7:3~7]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여기에 네 마리 짐승이 있는데, 머리는 모두 일곱입니다. 셋째 짐승인 표범이 머리가 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 네 마리 짐승의 머리를 합한 것이니까 네 마리 짐승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 뿔도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열 개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짐승들은 왕국입니다. 머리 하나가 다 한 왕국을 표상하고요, 넷째 짐승의 열 뿔도 열 왕국을 표상합니다. 이것은 제작 년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왕국들을 뒤에서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계시록 12장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일곱 왕국과 넷째 왕국에서 분열된 열 왕국을 지배하는 배후 세력이 바로

사단, 루시퍼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장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할 때 유럽 열나라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도 바로 이 열 뿔 중에 하나입니다.

4. 목사님, 그 일곱 왕국이 어느 어느 왕국입니까? 일반적으로 네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일곱 왕국이라고 하니까요.

답: 다니엘서 7장의 왕국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청자들 중에 전에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결과만 말하는 것을 그냥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네 왕국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이지요. 그런데 헬라를 표상하는 표범은 머리가 넷입니다. 이것은 헬라가 네 나라로 분국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더 자세한 것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 천사가 설명했지요.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거기서 그만 못한 네 뿔이 나오는 것을 네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숫염소가 헬라라고 설명했습니다.(단8:21,22) 그런데 이 네 나라로 갈라진 나라들이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카산데르 왕조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장군들이 헬라를 나누어 각각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라입니다. 용의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을 다 하나의 독립 왕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라의 배후가 사단이라는 것을 계시해준 것입니다.

5. 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때에 통일 제국이 되었지만 그가 죽고 네 장군이 각각 나라를 세웠을 때는 비록 헬라의 왕조를 이었다는 명분은 가졌는지 몰라도 결국 다른 왕국들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 뿔은요?

답: 열 뿔은 로마가 망할 때 게르만 민족들이 세운 열 왕국들이지요. 그것들의 정권을 주장하는 것도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표상은 이 지구상에 정치권력의 배후가 사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한도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일곱 나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묵인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가 완전히 그 존재를 상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활동을 묵인하십니다. 사단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12:12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절을 살필 때 말하기로 하지요.

6.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답: 성경에서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별이 천사를 상징한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한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몇 구절들을 보면 별이 천사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7에 보면 용의 사자들이 있지요. 사자라는 말이 양겔로스인데,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용이 꼬리로 끌어 떨어뜨린 3분의 1의 별들이지요. 그리고 또 사사기 5장을 봅시다.

[삿5: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의 전쟁인데,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의 소스입니다. 천체로서의 별들이 서로 싸울 수 없지요. 천사들을 상징하는데, 천사들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표현인데,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운 사실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싸움이 바로 계시록 12:7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7절을 공부할 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에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는 유리하는 별이 나옵니다. 떠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말이지요. 주석가들은 사사기에 있는 말이나 유다서에 있는 말을 천체인 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천연계의 재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뜻이라고 주석하고 유다서의 별은 유성이나 혜성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도 포함되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계12:7 말씀을 근거해서 또 붉은 용이 그 꼬리로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이 두 곳에 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천사들의 동태에 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다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몇 곳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중에 루시퍼를 따른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엄청 많은 수가 루시퍼를 따랐네요.

7.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믿고 그대로 받아야지요. 그 분명한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13:12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고전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온전히 알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있고 사단의 추종 세력으로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루시퍼가 반역한 이유만큼이나 루시퍼를 따라가는 천사들에 대한 것도 신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이유를 일일이 찾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실을 계시록에 기록해 주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7.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답: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계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이지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 복음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주가 오시는데 그 구주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으로부터 구주 예수님의 생애 전 기간을 통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모든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8.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헤롯이 그렇게 아기들을 죽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기독교회가 헤롯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 역사적 기록이 없을까요? 끔직한 사건인데.

답: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봐도 될 문제 이기는 한 것 같네요. 역사 기록은 권력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헤롯이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면 기록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야사로라도 그런 흔적이 있을만한데 그런 흔적도 없지요. 요세푸스도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나보지요. 헤롯이 잔인하다는 기록들은 있어도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 호적 하러 몰리는 사람들이 유숙할 여관들이 모자랐지요. 미가서에 작은 고을이라고 했습니다.

[미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예수께서 탄생했을 당시 베들레헴의 주민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집 수가 몇 채나 되었을까요?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 고을에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남자 아기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아주 적은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아로 죽은 수가 몇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역사에 기록할 만한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을 지나친 추측입니다.

9.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럴 것입니다. 이야기가 겉길로 갔습니다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용이 아기를 삼키려고 한 것으로 상징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여쭙어본 것입니다.

답: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도 되니까 좋습니다.

10. 그런데 용은 실패했네요. 용이 대단히 분노했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니 용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에 그런 핍박을 하는 것은 용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곱 번이나 같은 기간에 대하여 기록하게 한 것은 성도들이 그 기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5절을 먼저 살펴야 하겠지요.

[계12: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도 포함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은 심판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이 말이 심판을 뜻한다는 것은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편에도 있습니다.

[계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시2:9]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무튼 이 계시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 사건으로 이 세상에 일곱 교회를 위시하여 일곱 인, 일곱 나팔까지 사건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굳게 서서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이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된 근원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준동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굳게 붙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